

지나가는 여인에게, —보들레에르1860

거리는 내 주위에서 귀가 멍멍하게 아우성치고 있었다.  
잘 차려입은 상복, 장중한 고통에 싸여, 후리후리하고 날씬한  
여인이 지나갔다. 화사한 한쪽 손으로  
꽃무늬 주름 장식 치맛자락을 살포ت 들어 흔들며.

날렵하고 의젓하게, 조각 같은 그 다리.  
나는 마셨다, 열빠진 사람처럼 경련하며.  
태풍이 싹트는 창백한 하늘, 그녀의 눈에서.  
얼을 빼는 감미로움과 애를 태우는 쾌락을.

한 줄기 번갯불..... 그리고는 어둠! 그 눈길로 홀연  
나를 되살렸던, 사라져 간 미인이여.  
영원에서밖에는 그대를 다시 못하련가?

아득히 먼, 저세상에서,! 너무 늦으리! 아마도 ‘영원히’ 보지 못하리!  
그대 사라진 곳 내 모르고, 내 가는 곳 그대 알지 못하기에.  
오 내가 사랑했음지도 모르는 그대. 오 그것을 알고 있던 그대여!

『나쁜 피』의 첫 뿔랑은 침묵·이미지로서 하나의 신을 구성하고 있다. 침묵의 말로 사랑을 나누는 두 마리 학의 몸짓으로 사랑의 조건을 보여주는 첫 장면은 이미 영화 전체의 조건을...

모음들, —랭보

A 흑색, E 백색, I 적색, U 녹색, O 청색 : 모음들이여,  
나는 언젠가 너희들의 잠재된 탄생을 말하리라.  
A, 잔인한 악취를 둘러싸고 뿜뿜거리는  
그 번들거리는 파리떼의 털투성이 검은 코르셋,

어둠의 만, E, 안개와 천막의 순결,  
당당한 빙하들의 창, 하얀 왕들, 산형화들의 떨림,  
I, 붉은 옷, 토한 피, 분노 혹은 회개의  
도취에 잠긴 아름다운 입술의 웃음.

U, 순환주기들, 초록 바다의 거룩한 출렁임,  
동물들이 흩어져 있는 방목장의 평화, 연금술이  
학구적인 넓은 이마에 새기는 주름살의 평화;

O, 기이한 금속성으로 가득찬 지고의 < 나팔 >,  
< 모든 세계 >와 < 모든 천사들 >이 가로지르는 침묵 :  
— 오, < 오메가 >, < 그이의 눈 >의 보랏빛 광선 !

## 지옥에서 보낸 한 철

“내 기억이 확실하다면, 지난날 내 인생은 향연이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이 열리고 온갖 술들이 넘쳐흘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름다움>을 내 무릎에 앉혔다. — 그리고 보니 그게 쓰라린 것임을 알았다. — 그래서 욕을 퍼부어 주었다. 나는 정의에 대항하여 무장을 단단히 했다.”

## 나쁜 피

나는 골族의 선조들에게서 푸르고 흰 눈과 좁은 두개골과 싸움에서의 서투름을 물려 받았다. 알고 보면 내 옷차림도 그들만큼이나 야만스럽다. 그러나 나는 내 머리털에 버터를 바르지는 않는다.

골族은 짐승 가족을 벗기는 자로서도, 풀을 태우는 자로서도, 그들의 시대에 가장 무능한 자들이었다.

그들에게서 나는 우상숭배와 신성모독에 대한 사랑을, — 오! 모든 악덕, 분노, 음탕함을, — 멋지도다, 음탕함이며, — 무엇보다도 거짓과 나태를 물려받았다.